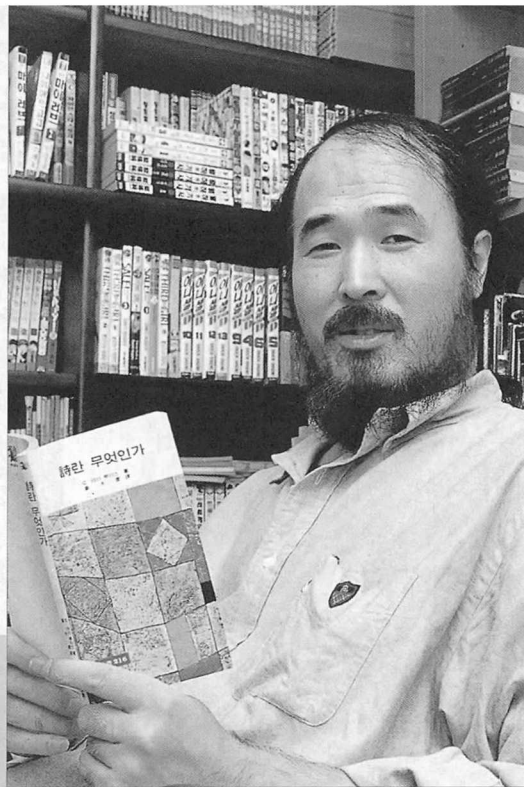


오래 전에 헤어진 여인을 다시 만난 심정

만화 스토리작가 김세영씨가 뽑은 C. 데이 루이스의 《시란 무엇인가》



“이 책에 실린 시를 노래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친구의 동생이 병에 걸린 친구가 찾는다며 자신을 부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잠깐 생각해봤네. 나는 갈 마음이 없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친구에게 갑니다. 친구는 자신의 장례식에 꼭 오라고 말합니다. ‘나는 잠깐 생각해봤네. 나는 갈 마음이 없다고 생각했네.’ 그러면서 또 장례식에 가죠. 이런 구절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읽게 됐는지, 또 어떻게 잃어버리게 됐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허영만의 만화 《오! 한강》 《카멜레온의 시》 등의 스토리작가인 김세영씨(46)가 서가에서 뽑아 든 책은 조그만 판형의 시문서 《시란 무엇인가》(탐구당)다. 스토리작가로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인 명작 《카멜레온의 시》를 쓰게 한 로트레아몽의 《말도로르의 노래》와 막판까지 경쟁하다가 결국 선택된 책이다. 20대 후반, 우연히 구해 읽었다가 그만 잃어버린 책.

“작년에 한 여학생과 시 얘기를 하다가 문득 이 책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이 정확하게 이 책은 아닙니다. 장만영씨가 《시학입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했던 책이라고 기억합니다. 그 뒤, 잊고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이 책을 발견하고 두권을 사 한권을 제게 선물하더군요.”

그래서 20여년만에 이 책과 다시 만나게 됐다. 그가 ‘오래 전 헤어졌던 여자와 재회하게 된 느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단기사병으로 근무하던 시절, 시를 공부하던 선배를 만나면서 시의 세계를 알게 됐다. 서정주·이승훈과 민음사 세계시인선의 그 현란한 이미지의 숲을 지나 술 마시고 지새운 어느날 아침, 어디선가 구한 이 책을 들고 고궁 벤치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기억나는 것은 그 아침뿐입니다. 단숨에 읽어버렸죠. 20대 초반에는 스토리가 명확한 세계를 좋아해 소설만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미지가 생생한 시의 세계에 매료됐습니다. 그 세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읽은 책 중 하나입니다.”

73년부터 시작한 만화스토리 작가의 삶이 이제 벌써 30년 가까이 이르렀다. 우리에게는 최초로 알려진 스토리작가인 김세영씨에게 책은 작품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최근 한 신문에 연재 중인 《사랑해》에는 시구와 책구절이 자유자재로 동원돼 자신의 장점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시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책 속의 내용을 인용해 이렇게 말한다.

“시는 아무 쓸모도 없고 소용 닿는 데도 없습니다. 출세에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지개는 출세에 도움되는가? 참으로 통쾌한 구석이 많은 책입니다.” — 김연수 기자

열린 마당

가장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 ① 출판의 승부는 기획·편집에 있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 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출판미술가·사진작가 등이 온 힘을 모아 ‘21세기를 준비하는 출판물’을 기획·편집하고 있습니다. 雄飛하는 동반자이기를 기대합니다.
- ② 베스트셀러 생활도서·유아도서 및 교구·오디오·비디오 기획·제작의 광범위한 실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 ③ 종합마케팅플랜에 근거한 표지·광고·팝플렛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획·원고작성·번역·편집·디자인·제작代行

110-121 서울·중로구 중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739-0150(代) 팩스: 739-0160



高品質의 제작

이때까지는 크일이나 작은 일이나 재판·인쇄·제본 등의 工程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삼덕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



110-121 서울·중로구 중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739-0150(代) 팩스: 739-0160
인쇄·제본공장: 465-4707(代)